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하락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무연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3.4원 내린 1911.1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2010년 10월 첫째 주 이후 26주 연속 상승했으나 정유기업의 공급가격 인하 방침(4월7일)에 힘입어 4월 둘째 주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5월 둘째 주까지 4주 연속으로 오른 후 5월 셋째 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주유소의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 변화

(단위: 원/ℓ)

구 분	2010	2011.4	5.3주	5.4주	6.1주	6.2주	전주대비
보통 휘발유	1,710.4	1,951.2	1,942.8	1,926.6	1,914.5	1,911.1	↓3.4
자동차용경유	1,502.8	1,792.8	1,777.1	1,750.0	1,733.8	1,729.4	↓4.4
실내등유	1,076.0	1,353.0	1,364.1	1,357.7	1,352.5	1,350.2	↓2.4

자동차용 경유도 리터당 4.4원 내린 1729.4원으로 6주 연속 하락했고, 실내등유 평균가격도 2.4원 내린 1350.2원으로 4주 연속 떨어졌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평균 197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1920.0원), 강원(1918.4원)이 비교적 비쌌고 광주(1883.7원), 전남(1890.9원), 전북(1894.1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6월 첫째 주 정유기업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8.6원 내린 855.5원, 경유는 2.1원 하락한 923.2원으로 2월 넷째 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2011/06/13>